동체대비 실천 '월주 스님' 1주기 추모 이어져

금산사서 원적 1주기 맞아 추모전시회도 개최

조동제 전북지사장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동체대비(同體大悲)·요익중생(饒益衆生)의 삶을 실천했던 태공당 월주 대종사의 원적 1주기 다례재가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엄수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일원)는 7월 11일 금산사 대적광전에서 태공당 월주대종사 추모1주기 다례재를 봉행했다.

이날 추모다례재는 태공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의 헌향, 평상 스님의 헌다, 도법 스님의 헌화에 이어 삼배, 종사영반, 참석자 헌화, 월주대종사 생전 영상법문 시청,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추모사, 도영 스님과 일원 스님의 인사말 순으로 진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일평생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삶을 사셨던 대종사님의 법향이 시간이 지나도 제자들은 한없이 그립기만 하다"며 "세상이 어려울수록 사회 속에 불교의 가르침을 실현하시고자 하셨던 그 큰 원력으로 빈자리는 더욱 커져만 간다"고 스승을 기렸다.

스님은 또 "대종사께서는 종단을 반석 위에 올려놓았고 군부의 칼날 앞에서도 정의를 놓지 않았으며 귀일심원 요익중생의 가르침으로 사회적 약자에 자비의 손길을 내주었다"며 "불법은 항상 세간에 있음을 역설하시며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신 스님, 보현행원을 실천하며 대보살의 삶을 사신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뒤를 따르겠다"고 다짐했다.

문도를 대표해 도영 스님은 "은사 스님은 40년 전에 〈보살정로〉라는 책을 내시면서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셨고 사회를 맑게 하겠다는 원력으로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맡아 활동을 해오셨다"며 "우리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구촌공생회를 설립하셨다"고 회고했다.

도영 스님은 이어 "대종사께서 100세까지 사셨다면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스님의 뜻을 천분의 일이라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다짐하는 1주기 추모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월주 스님 1주기를 맞아 불자들이 처영기념관에서 추모전시회를 열었다.

도영 스님 "가르침 실천 중요"
1000여 대중 모여 추모 행렬
2주기엔 부도탑 건립 등 예정


다례제 헌화 모습.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 원근각지에서 왕림해주신 사부대중들께 감사드린다"며 "제가 불민해서 아직 부도를 모시지 못했지만 내년 2주기에는 부도를 모실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재에 참석한 군산 은적사 신도 김현서 불자는 "큰스님 생전에 가까이서 뵐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신행생활에 큰 영광이라 생각한다. 1년이 지나 뒤돌아보면 곁에만 계셔도 마음이 편한 큰 어르신이었다"고 회고하고 "1주기를 맞아 큰 스님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마음을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다례재를 마친 사부대중은 처영기념관으로 장소를 옮겨 '태공 송월주 큰스님 추모전시회'를 관람했다. '세간을 떠나 진리를 구할 수 없다'는 스님의 생애를 담은 추모전시회는 동체대비(同體大悲), 세계일화(世界一花), 송백지절(松柏之節)의 주제별, 시기별로 활동상황을 정리해 구성됐다.

평소 '불법(佛法)은 세간(世間)에 있고 깨달음은 세간을 떠나 있지 않으니, 세간을 떠나 깨달음을 구하면 그것은 마치 토끼뿔과 거북털을 구함과 같다'는 가르침과 총무원장을 마치고 지구촌공생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대표활동 등 속세로 다시 돌아오는 제2의 출가로 일평생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했었던 현장을 사진에 담았다.

한편,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도영, 도법, 평상 스님 등 태공문도 스님들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암도 스님, 원로의원 보선 스님, 법타 스님, 원행 스님, 지명 스님, 조계종 법계위원장 법산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교육원장 진우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 백년대계본부장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 민족공동체본부장 월우 스님, 소청심사위원장 동명 스님, 총무원 총무부장 삼혜 스님, 기획실장 법원 스님 등 조계종 집행부 스님들과 17교구 본말사 스님들, 조봉업 전북행정부지사, 정성주 김제시장과 김용수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장을 비롯한 각급 신도신행단체 불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유지를 기렸다.

한편 전북 정읍 산외면에서 출생한 월주 스님은 제17교구본사 금산사 주지, 전북종무원장, 총무원 총무부장, 동국대 이사, 중앙종회 의장, 제17대, 제28대 총무원장, 원로의원 등 종단의 주요 공직을 역임하고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을 펼치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대표, 나눔의 집 이사장, 지구촌공생회 대표 등을 역임했다. 2021년 7월 22일 김제 금산사에서 입적했다.

대구교사불자회 창립 24주년 기념 총회

대구교사불자회(회장 정영채)가 7월 9일 능인중고등학교 반야전 3층 법당에서 신임회장 취임식 및 대구교사불자회 창립 24주년 기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회에는 팔공총림 동화사 승가대학장 종인 스님과 능인학원 교법사 원경 스님, 문수 스님, 김화연 전국교사불자회장과 교사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영채 회장(능인중학교 교장)은 "직능신행 단체로써 청소년 교육과 불교포교에 막중한 책임을 가져 미래 불교의 주역인 청소년에게 밝은 미래를 열어주자"고 말했다

초청법사 종우 스님은 "수행은 곧 자기 마음자리를 보는 것"이라며 "불자교사로 지식은 지혜로, 행위는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밝혀 보리심을 증장시키자"라고 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진안 쌍봉사, 지역장애인 문화행사 지원

7월 12일 시각장애인 위한
경로문화행사서 봉사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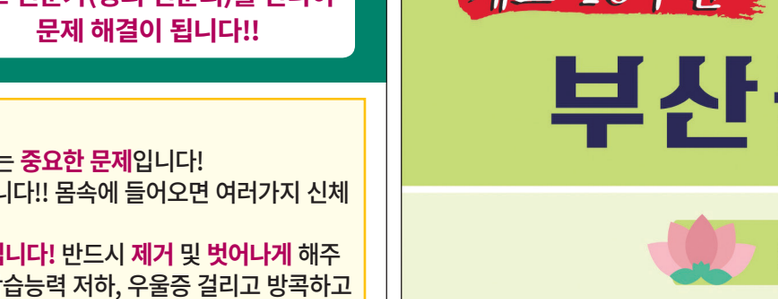
9일 청각장애인 자비나눔
마을밥상 등 봉사도 진행

진안 쌍봉사(주지 보경)가 지역장애인들을 위해 경로문화행사를 후원하고 나서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진안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만복의 소리 봉사단, 쌍봉사 섬김봉사단은 7월 12일 진안 시각장애인협회(회장 김춘심)가 진안군 전통문화전시관에서 개최한 진안군 시각장애인 경로문화행사에 참여해 봉사를 진행했다.

이번 시각장애인 경로문화잔치에는 시각장애인 80여 명과 진안 쌍봉사 섬김봉사단을 비롯한 봉사자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쌍봉사 섬김봉사단과 만복의 소리 봉사단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심식사 배식 봉사를 펼쳤으며 쌍봉사 보경 스님은 선풍기 등 여름용품을 경품으로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시각장애인들은 진안군과 쌍봉사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를 마치고 노래자랑, 초청가수의 공연을 즐기며 코로나 확산 이후 3년 만의 문화행사를 만끽했다.


진안 쌍봉사 대중들이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은 "진안지역 장애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시각장애인들을 보면 애뜻한 마음이 들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다행히 쌍봉사 섬김봉사단과 만복의 소리 봉사단 불자들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어 마음을 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과 전춘성 진안군수, 김춘심 시각장애인협회 진안지부장, 김남희 전북시각장애인협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쌍봉사는 지난 6월 진안지역 장애인들을 초청해 장애인 문화한마당을 개최한 바 있다. 7월 9일에는 진안지역 청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센터 관계자 등 30여명을 초청해 마이산 홍삼족욕카페에서 족욕체험을 진행했다. 또 삼겹살을 함께 먹으며 청각장애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진안읍 포교당인 쌍봉사는 특히 '찾아가는 마을밥상'을 운영하고 반찬나눔 봉사활동도 펼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순 벚꽃길에서 가지치기된 벚나무를 살펴보는 스님과 불자들.

천년고찰 개천사 벚나무길 훼손 파문

천년고찰 화순 개천사(주지 보원) 입구 벚나무가 심하게 잘려나가 사찰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개천사 인근 풍력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대명에너지 측은 전남 화순군 춘양면에서 개천사까지 1.3km 구간 가로수를 가지치기 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나무들이 수령 20~30년 된 벚나무로 화순 벚나무 축제 등의 자원이었던 것. 가지치기 작업 명목으로 심하게 훼손된 벚나무를 본 개천사 신도들과 지역주민들은 함께 항의와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대명에너지 측은 "해당 구간은 가치치기 명목으로 화순군의 허가를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미 지난 5월 마을 입구 느티나무 가지치기 과정에서 심한 훼손으로 지역주민의 반발이 있었다.

개천사 주지 보원 스님은 "사찰 입구의 아름다운 벚나무를 전지작업이 아닌 절개 수준으로 심하게 잘라내면서 지역의 큰 명소로 거듭나고 있는 사찰과 마을의 심각한 피해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단순한 전지작업을 넘어 사찰 인근에 조성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의 장비를 이송하고자 계획적으로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상담환영합니다!

빙의제거와 신기운 제거는
최고 전문가(빙의 전문의)를 만나야
문제 해결이 됩니다!!

[상담대상]
◉ 빙의와 신기운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 한 개인의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 빙의 기운에는 사람, 동물, 식물, 기타 여러가지 기운이 몸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가지 신체적 장애, 정신적 이상증세를 일으킵니다.
◉ 특히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이 빙의와 신기운에 노출되면 인생 전체가 망가집니다! 반드시 제거 및 벗어나게 해주어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영리하고 똑똑했던 자녀가 어느 시점 이후 갑자기 학습능력 저하, 우울증 걸리고 방콕하고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연예인, 연극인, 영화배우, 탈렌트, 가수등 마음이 여리고 순수하고 감정, 감성 중심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빙의와 신기운에 잘 접속되고 벗어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면 인생 전체가 불행해집니다! (예 : 만성우울증, 가위눌림, 불면증, 공황장애, 공포증, 불안장애등에는 반드시 빙의가 접속되어 있습니다!)
◉ 다 그런건 아니지만 직업상 시신을 자주 접하는 사건 현장 담당 경찰업무 하신분, 119대원, 소방업무 종사자, 장례식장 종사자 등 심약하신 분들은 빙의에 접속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 : 가위눌림, 악몽자주꿈, 불면증, 망자가 꿈에 자주 나타나는 경우,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 몸이 무겁고, 만성 피로감등)
◉ 이상행동, 어느 시점 이후 부터 과거와 매우 다른 행동, 습관이 있는 경우, 병원에 오래 다녀도 낫지 않은 경우등
◉ 희귀병 (병원에서 낫지 않은), 조현병, 분노조절장애는 100% 빙의로 인한 것입니다! (감정기복 매우 심함, 묻지마 폭행, 과격한 행동 등)
◉ 직업상 묘이장, 파묘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건강이상, 정신이상 증세, 가정불화(의처증, 의부증 심함), 잦은 우환, 이상행동 하는 경우
◉ 여러번 천도재, 굿해도 효과 못보신 분

◉ 빙의전문의로서 정직과 신뢰와 꾸준한 사후 관리로 빙의 환자와 함께 문제 해결로 집중해 갑니다!
◉ 원격치유가능 (환자직접 오지않아도 됨) ⇨ 최고 전문가만 가능
◉ 문제해결, 증상해결 중심으로 상담 ◉ 전생빙의치유, 마스터과정수료
◉ 20여년 빙의, 신기운 천도 경력 노하우 갖춤
◉ 증세가 오래 되었거나 심한 경우는 일정기간 간격을 두고 천도정성과 사후 관리를 꾸준히 받으면서 가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원격사후관리 가능)

※ 전화·대면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주불교금강선원 (빙의천도, 신기운천도 전문 상담원) ☎ 064-746-0789 오시는길 : 제주도 제주시 삼무로 47 3층

개교 40주년
부산불교교육대학

승려 연수 인증교육 [비대면 ZOOM]
■ 과 목 : 뇌과학적 사실로 이해하는 붓다의 깨달음과 마음의 구조
■ 일 정 : 2022년 8월 22일(월)~26일(금) 5일간 13:30~16:30
■ 교 수 : 동국의대 해부학 교수 문일수 (서울대학원 · 캐나다UNB박사)
■ 교육비 : 10만원
■ 특 징 : 2600년전 붓다의 깨달음을 현대의학으로 규명하는 흥미롭고 유익한 정보 제공

부동산 융합풍수학과
■ 개 강 : 2022년 9월 19일(6개월간 매주 월요일 오후7시~9시)
■ 교육비 : 월 7만원
여해스님 (부산이산학회 회장, 한국풍수최고봉 이산 장태상 선생 수제자)

대한불교조계종 삼보문화회
부산불교교육대학 학장 평천 범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749-1 신동아오피스텔 5층(서면 롯데백화점 맞은편) Tel. 051-711-0700